



〈이영구 6단〉 〈윤준상 6단〉 〈김지석 4단〉 〈한상훈 초단〉

'4인 4색' 신예기사상 주인공은?

30세 미만·입단 10년차 이하 프로기사에 수여

이영구·윤준상·김지석·한상훈 등 치열한 각축

이맘쯤이면 바둑계는 슬슬 끝내기를 준비하게 된다. 한국기원은 매년 디승, 승률, 연승 등의 기록을 모아 바둑대상을 열어 최우수자에게 시상을 하고 있다. 기록부문을 제외한 경쟁부문은 언론사 바둑 담당 기자와 관련기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투표로 수상자가 결정된다.

바둑대상의 꽃이자 MVP는 물론 최고의 프로기사에게 주어지는 최우수기사상이지만 그 못지않게 경쟁이 치열한 부문이 신예기사상이다.

한 해 동안 최고의 성적을 올린 만 30세 미만, 입단 10년차 이하의 프로기사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바둑대상의 부문 중 유일하게 일생 단 한 번 밖에 수상할 수 없는 상이기도 하다.

올해 신예기사상의 유력 후보는 일단 4명 정도로 압축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영구 6단과 윤준상 6단, 김지석 4단과 한상훈 초단이 그들이다.

나이는 이영구와 윤준상이 1987

년생으로 올해 스물이하고 한상훈이 열아홉, 그리고 김지석이 열여덟로 가장 어리다.

네 사람 중 일단 가장 화려한 전과를 자랑하는 후보는 윤준상이다.

올해 이창호와 국수전과 원위전에서 타이틀을 펼쳐 1승 1패를 했다. 지난 3월 전통의 제50기 국수전에서 우승하며 당당히 메이저 기관 타이틀을 훌륭히 부상한 것이다.

‘록기’ 이영구 역시 유력한 후보. 2007년 한국바둑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영남일보팀의 윤준상은 이미 최강의 특장이다.

올해 이창호 역시 우력한 후보. 2007년 한국바둑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영남일보팀의 주장을 맡아 맹활약을 펼치는 한편 제3회 한국물가정보배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56승 25패로 다승 3위에 랭크돼 있으며, 총 81국을 두어 94국의 목

정도로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한상훈 초단은 2007년 한국바둑계가 진전 최대 월척 중 하나로 꼽기기에 부족함이 있다.

초단 신분으로 한국바둑리그 대

방 노블랜드팀의 2장에 선발되는

파란을 일으킨 한상훈은 특히 국제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올해 저

단 돌풍의 핵심으로 급부상했다.

현재 한상훈은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양대 국제대회인 LG배 세계

기왕전과 삼성화재배에 나란히 16

강에 올라섰으나 그의 돌풍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LG배에서는 구리, 삼성화재배에서는 이창호라는 거합을 침몰시켜 강인한 인상을 남기는데 성공했다.

강동운과 함께 포스트 이세돌 시

대를 이끌어 갈 최고 유망주로 꼽

힌 김지석도 올 해 신예기사상 후보에 오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적을 거뒀다.

한국바둑리그 영남일보배팀에서 2장으로 이영구의 뒤를 받쳤으며 2월에는 나란히 올스타전에 출전하기도 했다. 53승 21패로 다승 4위, 최다대국 3위에 올라왔다.

남은 3개월 간 이번이 없는 한 2007 바둑대상 신예기사상은 이네 명 중 한 명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은 이견이 없는 듯하다.

다만 윤준상은 국제대회에서의 부진, 이영구는 잇단 준우승의 한계, 김지석은 타이틀전 출전 경험에 전무하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으며 한상훈은 남은 국제대회에서의 선전 여부가 승부의 관건이다.

절대 강자를 허락하지 않는 2007년 신예 각축전. 신예기사상은 올해 찬란한 남은 국제대회에서의 선전 여부가 4인 4색의 치열한 경쟁을 지켜보는 것도 올해 바둑계의 종반전을 지켜보는 쓸쓸한 재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연합뉴스

광주 KIXX

“4강 꼬이네”

광주 KIXX의 한국바둑리그 포스트 시즌 진출이 불투명하게 됐다.

광주 KIXX는 최근 열린 2007 한국바둑리그 11라운드 경기에서 월드메르디앙에 2-3으로 패배,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한 승수쌓기에 실패했다.

현재 4승7패를 기록하고 있는 킥스는 나머지 3경기를 모두 승리하는 경우에도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한 마지막 선인 4위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5일 현재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영남일보(1위·8승3패), 제일화재(2위·7승3패), 월드메르디앙(3위·6승5패), 신성건설(4위·6승4패)의 남은 경기를 지

11R 월드메르디앙에 패배

바둑리그 PO진출 불투명

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리그에 참가한 전대방노블랜드는 대구 영남일보에게 무릎을 꿇어 1승10패로 바둑리그 참가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리그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개인성적 부문에서는 월드메르디앙의 유창혁, 제일화재의 이세돌, 울산디아제의 강동운이 나란히 8승1패로 공동선두 각축을 벌이고 있다.

영남일보의 김지석(8승3패)은 4위, 광주 KIXX의 이창호(7승4패)는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대회 우승상금은 2억5천만원이며, 제한시간으로는 각자 10분 3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진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2011회 광주시 바둑협회 회장배 바둑대회

광주 최대의 바둑 큰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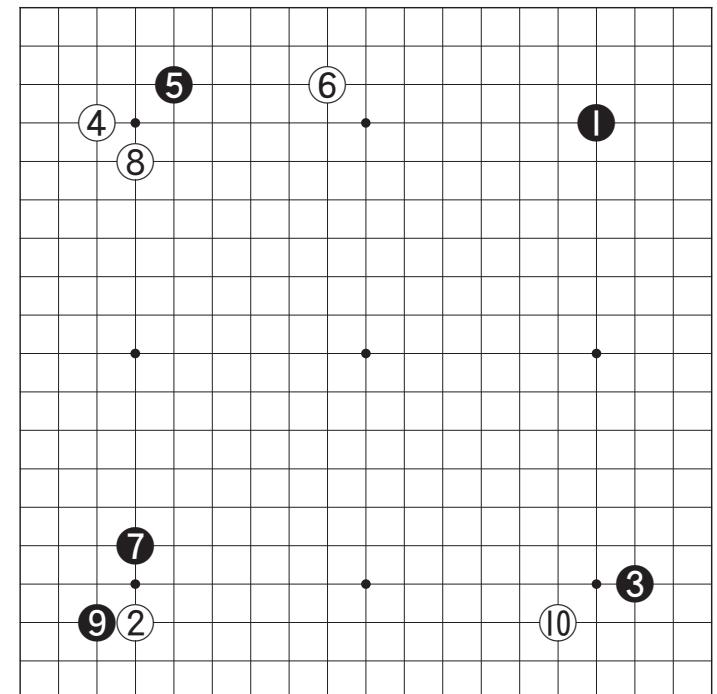
1보(1~10)

최강부

준결승 1국

白 김희관 5단

黑 선계성 6단



지난 7월 17일 구동실내체육관에서 광주 지역 바둑 역사상 최초이자 최대의 바둑큰잔치가 벌어졌다.

이 행사는 광주광역시 바둑협회 2 대회장으로 취임한 고경주(급광기업 대표이사) 회장이 취임 첫 사업

으로 추진한 바둑대회로, 최강부를 비롯하여 노년부·일반부·여성부·어린이부·구대한 단체전 등 전 바둑동호인을 총망라한 700여명이 참가하는 대성황을 이룬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바둑큰잔치가 벌어진 것이다.

이 대회에는 특히 이 지역 출신으로 프로기사인 필자를 비롯하여 양간 8강·김지석 5단·광주 5단·백홍석 5단·온소진 3단·강승희 2 단·김선희 2단·김수용 2단·조경호 1단·윤찬희 1단 등 10여명을 특별 초청하여 지도 다변기와 사인회 등 그동안 소원했던 지역 바둑 팬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여 바둑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깊은 관심과 조명을 받는 분야는 역시 강자들이 겨루는 아마최강부라고 할 수 있다.

이 바둑은 최강부의 준결승전으로 강자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가장 먼저 4강에 선착한 선계성 6단과 김희관 5단의 열전보를 소개한다.

선계성 6단은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한때 이 지역 바둑을

정도로 한때 이 지역 바둑대회를 휩쓸고 강호로 이름을 날렸던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다.

반면 김희관 5단은 무게에서는 약간 떨어지지만 언제나 다크호스로 꼽히는 강호로 손쉽게 4강에 오르는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예측불허의 접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까지 김희관 5단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고근태·박정환 2단 원익배 14강 합류

고근태 6단, 박정환 2단(사진)이 10단 타이틀을 향해 첫걸음을 떴다. 고근태 6단은 최근 열린 3기 원익배 십 단전 본선 2회전에서 허영호 6단을 275수 만에 백 2집 반으로 꺾고 14강에 합류했다.

또 다른 본선 2회전에서는 박정환 2단이 조혜연 7단을 168수 만에 백불계로 제압, 14강에 안착했다.

박정환 2단은 이영구 6단과 8강 진출을 나누게 되며, 고근태 6단은 이상훈 6단을 상대로 8강 진출을 노린다.



조혜연(오른쪽) 7단이 지난 2일 스카이 바둑 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9기 STX배 여류명인전 폐권 대회에서 박지은 8단과 대국하고 있다.

〈사이버오로제공〉

조혜연 부활 신호탄 쐈다

박지은 꺾고 폐자조 우승 여류명인전 폐권 재도전

조혜연 7단이 숙적 박지은 8단을 꺾고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조 7단은 지난 2일 스카이 바둑 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9기 STX배 여류명인전 폐자조 결승전에서 박지은 8단을 203수 만에 흑 불계로 제압, 폐자조 우승을 차지했다.

조 7단은 승자조 결승전에서 이다해 3단에게 패해 폐자조로 밀려 났으나, 이 승리로 다시 한번 정상을 노렸다.

조 7단은 9일 자신을 폐자조로 밀어낸 이다해 3단과 여류명인전 도전자로 결정전을 갖는 등 설욕의 기회를 맞게됐다.

조 9단에게 이날 무릎을 꿇은 박지은 8단은 조 9단과 입단동기지만 역대전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이 최근 만난 것은 제12회 삼성화재배 예선 결승전, 이 대국에서도 조혜연 7단은 박지은 8단을 밤으로 삼성화재배 본선 진출을 이뤄냈다.

여전히 조혜연 7단은 대국전에서

이승호 8단과 함께 2007년 여류명인전

폐자조 결승전에서 박지은 8단과 대국하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특급상가 매매·임대

전대후문 노래방 70평

보증금 6천만원, 월200만원, 시설·관리비 1억 2천만원이 매물로 나왔다. 둘11개, 소방인증필증 나왔고 도주기자 필요없는 젊은이들의 상권.

전대후문 최고 중심상권에 위치하며, 월수익이 9백만원 이상인 일짜심이다.

상가전문 BM공인중개사사무소가 상권을

광주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가. 모집인원 - 여·남 7명

나. 지원자격

- 임마니 출증한 능력을 갖자는 3무 3유 다음의 조건입니다.

三無(3무) ① 내·외·외 경력 ② 금연 ③ 공인증명서

④ 부동산 사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함께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

⑤ 일상의 배려가 있는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계신 분

다. 제출서류 - 서면부착 이력서, 자기소개서

(무편집본 및 e-mail 접수만 받습니다)

라. 제출기한 - 2007년 10월 30일

마. 접수처 - 광주광역시 북구 웅봉동 152-4번지, 3F

e-mail:hjw4020@nate.com

바. 금리조건 - 협의 후 결정

사. 전행방법 - 서류심사 후 개별면접

(무편집본 및 e-mail 접수만 받습니다)

회사원 평범한 사람이 모여서 비범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므로,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서로의 친밀감을 공유하고, 단점을 도와주고 극복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종사자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공통의 취미생활을 즐기며, 개인의 친구를 염두에 두고 싶은 분, 부동산 시장 부문 최고기자 되고 싶은 분, BM이 피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상가 전속중개계약전문 공인중개사사무소

BM 公認仲介士 事務所

부동산은 공산물이 아